

5·18 발포명령자 규명 촉구 목소리 거세다

5·18재단 올해 사업설명회 열고 학살책임자 색출 올린 헬기사격 확인 따라 정당들 '진상규명 특별위' 설치 제안

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책임자, 5·18 집 단발포 명령자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광주시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150여점의 총탄 흔적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광주시민 학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5·18 기념재단은 학술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처벌 대법원 확정판결(내란목적 살인 등) 20년, 국립 5·18 민주묘지 조성 20년을 맞아 5·18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올해가 지난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발포명령자 규명의 분수령

이 될 전망이다. 각 정당도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5·18 기념재단은 18일 오전 광주 서구 5·18 재단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공개했다. 재단은 5·18 37주년을 맞아 올해 역점 사업으로 5·18 진상규명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등 새 정부와 함께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와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명령한 장본인을 색출한다는 것이다.

정당들도 이날 진상규명 촉구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

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 공개와 헬기 기총소사 관련을 포함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설명을 통해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음이 사실상 입증되었고, 이는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학살하려는 시도와 증거"라며 "군은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명확한 진상규명, 발포명령자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또 광주시에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5·18 단체와 광주시, 정당 등이 참여하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전일빌딩 등 5·18 기록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

시 발포 명령자 공개와 헬기 기총소사 관련자 공개 등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국민의 당 광주시당도 지난 13일 설명을 통해 "국방부는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한 실상과 살육 작전의 일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압 발포명령자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7년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고, 정부와 광주시의 전일빌딩 보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학살의 기억을 공식화하고 사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광주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헬기 발칸포 사격 명령받았다”... 당시 항공대장 진술 공개

“전교사 김순현 장군이 지시”

“헬기난사로 사망” 시민 증언도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가 계엄군 상부로부터 수차례 발칸포 사격을 명령받았다는 군 내부자의 과거 검찰 진술이 공개됐다. 5·18 당시 군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시민이 숨졌다는 목격담도 공개됐다.

5·18 기념재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당시 육군 1 항공여단 31항공단

103 항공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당시 39세)씨가 지난 1995년 5월 15일 서울지방 검찰청 926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전교사 작전 통제를 받았고 김순현 장군으로부터 5월 22일 광주전을 따라 위협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돼 서면 지시를 요구했고 결국 사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4일에는 11여단장(최웅 준장)이 병력 이동 중 산 쪽 폭도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해 출동했다”며 “산 위

에 있는 병력이 아군으로 확인돼 그날도 사격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답했다.

재단은 5·18 당시 군 헬기사격 현장을 목격한 광주시민 증언기록도 발표했다.

재단이 공개한 기록은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95년 ‘5·18 특별수사팀’에 헬기사격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제출한 시민 증언 자료집 가운데 일부다.

나주시민 송모씨는 지난 1995년 5월 31일 전주교 광주정평위에 “5·18 당시 광주로 통학하던 딸을 마중 가던 중 금당산 부

근에서 헬기 난사로 사람이 숨진 사실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광주대 근처에 살았던 광주시민 서모(여·당시 28세)씨는 “많은 총소리가 났다. 정신 차리고 보니 지붕 천장에 구멍이 뚫려 기왓장 틈으로 하늘이 보였다”고 정평위에 밝혔다.

5·18 재단 관계자는 “계엄군 항공대장 증언, 헬기 사격 사망자 목격 진술 등은 광주시민들이 수십 년 전부터 밝혀온 내용이다. 명확한 헬기사격 흔적이 전일빌딩에서 나온 만큼 이제라도 군당국은 진실한 사과와 발포명령자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혈액 부족에...헌혈 나선 공무원들 전국적으로 헌혈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마른 해산물에 마취제 발라 납치한다고? SNS ‘에틸에테르 괴담’ 기승

경찰 “범죄 발생한 적 없어”

마른 해산물에 발라 놓은 마취제를 이용, 사람들을 납치한 뒤 장기매매를 한다는 이른바 ‘에틸에테르 괴담’이 최근 휴대전화 문자와 카톡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18일 광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최근 에틸에테르 마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 “길거리에서 상인이 마른해산물을 권유하는데, 절대로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 해산물에 일종의 마취제인 에틸에테르가 발라져 있어 냄새를 맡는 순간 정신을 잃

게 되고, 결국엔 납치돼 장기매매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괴담은 ‘중국에서 남은 신종 범죄’로 알려진 것으로, 이미 수년 전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지금도 잊혀질만하면 다시 떠오르곤 하는 이야기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에틸에테르’라고 검색만 해도 과거 이 괴담이 유행했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자로 유포된 괴담처럼 마취제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장기매매를 하는 사건은 전국 어디에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말 그대로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 해산물에 괴담 수준인 만큼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대학생 대상 주식투자 사기 62억 가로채

북부경찰, 1명 구속·5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청은 18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주식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박모(33)씨를 구속하고 박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대출중개인 정보(45)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 주식투자 동아리를 만든 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을 모집, 대학생 430여 명에게서 62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일당이 동아리를 찾아오는 대학생들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아챘다

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명문대에 다니는 박씨는 주식투자 동아리를 만들어 각종 주식 투자대회에서 입상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가입한 여대생들에게 매달 수익금의 7.5%를 주겠다고 속이며 운영진 자리를 제안했으며, 대출중개업체와 연계해 불법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중개업체 중개인 4명과 공모해 여대생들에게 학력·직업 등을 금융기관에 허위로 말하도록 유도해 대출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은재기자 ej621@kwangju.co.kr

생후 2개월 장애 아들 버린 엄마 “반성”...집유 선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심판에 판사는 어린 아들을 버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심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판사는 “자신의 보호가 필요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하고 잠적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 2개월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 검진을 받은 뒤 버리고 달아났다.

/ 박정욱기자 jwpark@

“배고픈데 돈 없어서...” 참치캔 등 훔친 철없는 소녀들



○...참치 캔 살 돈이 없어 편의점에서 훔친 철없는 10대 소녀 2명

이 경찰서형.

○...18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A(16)양과 B(15)양은 지난 2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한 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참치 캔과 주스 등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

례에 걸쳐 91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

○...경찰은 편의점 CCTV를 분석, 이 둘의 이름과 학교를 확인해 검거했는데 같은 학교 친구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배는 고프는데 돈은 없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먹물을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 외
		정원내	정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우치원고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9(월) ~ 18(수)
• 전형 일 : 2017. 1. 23(월)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6(월)

• 전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오후 2시30분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석사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8(수) 오후 3시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